

제목 : 모방에 관한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필자의 반론

I. 서론

<국가>에서 소크라테스는 모방론에 관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크라테스의 모방론은 본질의 3단계, 열등한 혼, 그리고 좋은 성격만을 모방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에 대한 본인의 반론은 본질은 2단계, 무조건적으로 열등한 혼을 낳지 않음, 그리고 악한 성격 또한 모방해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론에서 각각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II. 본론

① 모방의 본질

소크라테스는 모방이란 본질에서 3단계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본인의 반론으로는 본질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가 만들어낸 물체 자체에 있으며, 이 본질은 모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주장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소크라테스는 모방을 설명하기 위해 ‘본질의 3단계’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를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침대를 예시로 들었다. “침대에는 세 종류가 있네, 그중 하나는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만든 이는 신이라고 말하는 것 같네. ~ 두 번째 것은 목수가 만든 것이네. ~ 세 번째는 화가가 만든 것이네.”<sup>1)</sup> 즉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침대의 본질, 형상은 신이 만들었으며, 제작자가 이를 바탕으로 물체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화가가 그 물체를 그려내어 형상을 모방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모방의 3단계는 시 문학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 점은 비극 작가도 마찬가지로 지일 것이네. 그도 모방자라면 말일세. 그는 본성상 왕과 진리에서 3단계 떨어져 있으니까. 이 점은 다른 모방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일세.”<sup>2)</sup>

소크라테스는 모방에 관해서 현상을 모방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리를 모방하는 것인지를 물었다. “실재를 있는 그대로 모방하는가? 아니면 보이는 것을 보이는 그대로 모방하는가? 다시 말해 현상의 모방인가, 아니면 진리의 모방인가?”<sup>3)</sup>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화가가 현상의 모방을 지향한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러한 모방술은 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모방술은 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네. 또한 모방술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것도 그것이 각 대상의 작은 부분을 다루는 데다 그 부분마저 영상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 같네.”<sup>4)</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소크라테스는 모방은 진실에서 떨어져 있음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모방술은 일부를 다루고 영상에 불과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모방은 사람들을 속인다고 주장한다. “그자가 모든 것을 다 아는

1) 플라톤, 천병희 옮김, 국가, 도서출판 숲, 13.02.20, 597b

2) 위의 글, 597e

3) 위의 글, 598b

4) 위의 글, 598b

인간이라고 믿게 된 것은 당신에게 지식과 무지와 모방을 구분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 오”<sup>5)</sup> 모방자가 모방한 것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인이라는 모방자를 만나 속아서 그들의 작품을 보고도 그것이 실재에서 3단계나 떨어져 있으며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sup>6)</sup>이라고 주장했다.

즉, 모방의 본질은 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다. 모방을 보고 본질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것이다. 모방은 본질 그리고 형상을 보고 만들어진 물체를 그린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방은 쉽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 모방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모방자의 문제가 아닌 사람들의 문제라고 보았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의견과 반대로, 필자는 모방이란 본질에서 멀리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본질이란 자연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가 만들어낸 물체 자체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형상과 물체는 기술자의 제작으로 인해 탄생하는 것이다. 또한 물체는 사용자의 사용법에 따라 그 본질이 달라진다. 소크라테스가 침대를 예로 들었듯이, 필자도 침대를 예시로 들고자 한다. 침대의 본질은 편한 잠을 위해서이다. 그러나 사용자에 따라 침대는 환자를 돌보기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소파로 사용될 수도 있다. 물체의 모습은 똑같은데 그 본질은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방은 쉽지 않다.

화가의 경우에는 물체와 그 안에 담긴 본질을 느끼고 그린다. 그러나 본질은 느끼는 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대중들에 의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만약 모방자가 자신이 아는대로, 해석한대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도 관람자들이 화가의 의도대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가의 경우 자신의 의도한 바대로 물체의 모방을 전달하지 못할 수 있어서 모방이 어려운 것이다.

문학에서의 모방은 그림보다 더 까다롭다. 시인이 본질과 형상을 알아서 글을 쓴다고 해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신 또는 영웅을 모방하기 위해서 그들이 놓인 시간, 배경, 그리고 그들이 가진 성격을 설명해야 한다. 시인은 그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 하나 고려해야 한다. 이후 완성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써야 한다.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등장인물들의 시공간적 배경과 성격을 결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들에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고 해도 모방하기란 쉽지 않다.

필자의 의견을 정리하자면 모방의 본질은 진실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본질과 형상은 물체 그 자체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사용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가의 경우 모방을 통해 진리를 전달한다고 해도 완전하게 이해되기란 어려운 것이다. 또한 시인의 경우 모방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모방이 어려운 것이다.

## ② 모방 예술이 영혼에 미치는 영향

두 번째, 소크라테스는 모방 예술이란 열등한 것으로 혼과 결합하면 열등한 것을 낳고 이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본인의 반론으로는 모방 예술은 무조건적으로 열등한 것이 아니며, 이성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각각의 주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모방은 열등한 것이다. “모방술은 열등한 것으로서 열등한 것과 결합해 열등한

---

5) 위의 글, 598d

6) 위의 글, 599a

것들을 날네. 모방술은 강요되거나 자발적인 인간 행위를, 행위의 결과라고 믿어지는 행복과 불행,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슬퍼하거나 기뻐하는 모습을 모방하네.”<sup>7)</sup>

“우리의 가장 훌륭한 부분은 이와 같은 이성의 지시에 기꺼이 따를 것이다. ~ 반면 고통에 대한 회상과 비탄에 끌려 아무리 회상하고 비탄해도 물리지 않는 부분은 비이성적이고 게으르고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안의 화를 잘 내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모방이 가능하겠지만, 현명하고 침착한 성격은 언제나 태도가 일관되므로 모방하기가 쉽지 않거니와 모방한다해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sup>8)</sup> 그에 따르면 모방이 열등한 이유는 우리의 이성적 부분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비이성적인 부분을 모방하기 때문이다.

“진리에 견주어 열등한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혼의 열등한 부분과 교제하고 가장 훌륭한 부분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점”<sup>9)</sup> 그러므로 모방은 혼의 열등한 부분하고만 결합하는 것이다. “시인은 혼의 열등한 부분을 깨워 가꾸어주고 강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이성적 부분을 훼손하기 때문이네.”<sup>10)</sup> 또한 그 열등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어 놓는다. 즉, 열등한 모방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이 훼손되는 것이다.

특히 이성의 훼손은 훌륭한 사람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훌륭한 자들이 비극에서 울고 괴로워하는 영웅들을 볼 때면, 그들도 즐거워하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이성적인 부분은 비극적인 감정을 자제시키는 것인데, 모방 시로 인해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시적 모방은 애욕과 분노,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동에 수반된다고 주장하는 혼 안의 욕구와 고통과 즐거움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작용하네. 그런 것들은 시들어 없어져야 하는데도 시는 물을 주어 가꾸고 있으며, 우리가 사악하고 비참해지는 대신 선량하고 행복해지려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지배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지배자로 만드니 말일세.”<sup>11)</sup> 그리고 그러한 시적 모방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이성 속 열등한 부분을 지배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모방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의견을 정리하면, 모방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부분과 감정을 모방하기 때문에 열등한 것이다. 우리는 이 모방을 보면서 비탄과 한탄 등 다양한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이성적 부분이 훼손되는 것이다. 인간은 이 모방을 계속 보면서 이성의 훼손을 막지 못하고 비이성적 부분이 더 자라나게 돕는다. 그러므로 모방은 우리의 혼에 열등한 부분이 강화되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의견과 반대로, 필자는 모방이 열등한 것이 아니며 우리의 영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소크라테스는 모방은 비이성적인 것을 모방하기 때문에 열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회상과 비탄이 무조건적으로 비이성적이고 게으르고 비겁하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회상과 비탄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내면이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모방은 우리가 더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만들고 우리 혼의 이성적 부분을 발전시킨다고 본다.

먼저 모든 모방이 악한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모방은 신과 영웅의 선함과 악함을 동시에 섞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 또한 이성적 부분도 모방하고 있다. 신들이 인간에게 어떤

---

7) 위의 글, 603b~d

8) 위의 글, 604d~e

9) 위의 글, 605a

10) 위의 글, 605b

11) 위의 글, 606d

별을 내려야 할지, 영웅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비이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최대한 이성적 판단을 하려고 하며 사건을 해결하려고 한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악한 감정과 선한 감정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는 다양한 감정을 가진 인간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대중들은 모방 시와 모방극을 보면서 그에 공감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 누군가는 모방 시와 모방극을 통해 치유받기도 할 것이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살펴보는 자아 성찰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훌륭한 자들이 비극에서 울고 괴로워하는 영웅을 볼 때, 즐거워하는 감정만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영웅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상상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들이 겪을 수 있는 사례를 비극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현실에서의 대처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영웅의 다양한 감정 변화를 보면서 자신도 동질감을 느끼고 위로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대중들 또한 모방극, 모방시를 통해 문학적 교양을 키울 수 있다. 교육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연극이나 시를 봄으로써 문학 지식이나 국어 지식을 상승시킬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책과 연극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감수성이 풍부하며 다양한 어휘를 사용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다독을 요구한다.

모방시와 모방극은 반면교사로 쓰일 수도 있다. 신화를 읽고, 보면서 인간이 신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받는 벌을 보게 된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 하면 안 될 일을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연극을 보면 잘못했을 때의 책임감과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 아이들에게 생생하게 전해지기 때문이다.

즉, 모방은 영혼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성적 부분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모방 시와 모방극을 통해 대중들이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어휘를 계속해서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돌아보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이다. 같은 주제를 공유하며 다양한 신화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그러므로 모방으로 인해 상호작용을 하게 되며 인간의 이성은 발전하게 되고, 자신의 내면이 더욱 성장할 수 있게 만든다.

### ③ 모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

세 번째, 소크라테스는 좋은 성격만을 모방하여 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필자는 악한 성격도 모방해 시를 지어야 함을 주장한다. 각각에 대한 주장을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소크라테스는 “만약 그들이 모방한다면, 그들이 모방하기에 적절한 것들, 말하자면 용감하고 절도있고 경건하고 자유민답고 그 밖에 그와 자질이 비슷한 사람을 어릴 때부터 곧장 모방해야 하네. 그들은 자유민답지 못한 짓이나 그 밖의 다른 수치스러운 태도는 행해서도 안되고, 그런 짓이나, 태도를 모방하는데 능해서도 안되네. 그런 태도를 모방하다가 실제로 좋아하는 일이 없도록 말일세.”<sup>12)</sup>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모방이 습관화되면 우리의 언어, 습관 그리고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인은 선한 것, 용감한 것을 골라 모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신의 좋은 성격만을 모방하여 시를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로 그는 신은 선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악의 기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신은 진실로 선하며 그것이 신

12) 위의 글, 396c

의 본성이다. 신은 악한 행위를 할 수 없고, 악의 원인일 수도 없다. 오히려 신은 행복의 원인이다. 인생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 신은 좋은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만 신의 책임이다. 나쁜 것은 신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한다.<sup>13)</sup> 소크라테스는 이를 제우스로 설명했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제우스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분배해주는 신이다. 그러나 사실은 제우스는 오로지 좋은 것을 분배해주는 신이다. 우리는 별받은 자들을 비참하다고 생각하고 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선한 신이 누군가에게 나쁜 것의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14)</sup>

두 번째로는 신은 불변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과 관련하여 고의로 거짓말하기를 원하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는 말일세.”, “존재와 관련하여 자기 혼이 속임을 당해 거짓과 무지의 제물이 됨으로써 혼 안에 거짓을 지니고 소유하는 것은 누구나 가장 피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네.”<sup>15)</sup>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켜 인간의 앞에 등장하는 것은 진실되지 않은 행동이다.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변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신은 진실로 선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사람을 속일 이유도 없으며, 인간의 거짓과 무지의 제물이 될 이유도 없다.

세 번째, 신은 진실하다. 신은 스스로 자신을 미혹하지 않기 때문에 환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신은 인간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인간을 미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지 않다. 신은 인간을 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다.<sup>16)</sup>

즉, 소크라테스가 말한 모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란 선한 신의 성격만을 모방하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의 생각과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신은 선하기 때문에 모방 속 악한 신의 성격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주장이다.

반면에 필자는 모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들, 불의하고 소심하고 수치스럽고 악한 성격도 선한 성격과 같이 모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뜻은 시인들이 글로써 모방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행동으로 모방하게끔하면 안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모방극, 모방시를 교육을 통해서 이를 반면교사로 삼도록 해야 한다. 이 성격을 반면교사로 삼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하면 안되는 일을 정확하게 알게 된다. 또한 우리가 악한 성격을 가져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벌을 알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악한 성격을 보면서 그것이 타인에게 끼칠 피해를 알게 된다. 이 피해를 막기 위해 우리는 악한 성격도 모방을 해야 한다.

특히 그리스 신화 속에는 자신의 권력을 보전하기 위해 자식과 권력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크로노스가 자신의 아버지인 우라노스의 고향을 거세한 것이다. 그는 권력을 위해 그의 아버지를 제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후에 자신의 자식이 자신을 위협할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자식들을 먹는다. 그러나 어머니의 노력으로 먹히지 않은 그의 막내 아들인 제우스가 그에게 복수하게 된다. 그 덕분에 다른 형제 자매 신들이 그의 뱃속에서 나오게 된다. 이 신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들 사이에서도 권력 다툼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배우고 권력 다툼을 벌이지 않게 될 것이다. 자신이 권

---

13) 위의 글, 379a~380b

14) 위의 글, 380d

15) 위의 글, 382b

16) 위의 글, 382e~383a

력을 잡았다고 해도 그것은 일시적이고 후에 다시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히 부자관계에 있어서 권력 갈등은 집안을 망치는 길이므로, 서로 권력을 쟁취하려는 투쟁은 벌이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집안 내의 갈등은 사라지게 될 것이며 화목하게 지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가 악한 성격의 모방을 통해 반면교사 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다. 바로 시시포스 신화이다. 시시포스는 잔꾀를 부리며 신을 기만했다. 또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제사를 지내지 않게 했다. 그러나 이 꾀는 신에게 들리고 만다. 결국 그는 무거운 돌을 들어올렸다가 그 돌이 떨어지면 들어올리기를 반복하는 형벌을 받았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신을 기만하는 행위는 강력한 벌을 받게 됨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신에게 대항하거나 기만하는 행위는 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전승됨으로서 사람들이 교훈을 얻게 한다. 그들이 잘못된 혹은 악한 성격을 저질렀을 때,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려줌으로써 그 성격을 행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아이들은 자라나서도 이 교훈과 이야기를 마음 속에 품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교훈으로 자신의 행동이 악한 것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며 살아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한 행동, 선한 성격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악한 성격 또한 모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Ⅲ. 결론

소크라테스는 모방에 관하여 첫 번째, 모방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신에서 재주꾼, 마지막에 화가가 제작물을 그려냄으로써 모방이 탄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모방은 인간의 비이성적인 부분, 감정을 모방하여 열등하다. 인간은 이러한 모방의 점을 좋아하여 자신의 이성적 부분을 훼손시킨다. 마지막으로는 선한 성격만을 보고 모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의 올바른 습관과 생각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필자의 반박으로는 첫 번째, 본질과 물체는 합쳐져 있으며 모방은 그를 모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방은 진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것이다. 두 번째, 모방은 다양한 감정과 어휘를 제공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성적 부분을 발전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악한 성격도 모방하여 아이들이 교훈을 얻게 하고 자아성찰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